/지역 단신/

장하다 순창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

'장하다 순창' 브랜드 슬로건 개발

순창군이 지역의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다.

순창군이 최근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 '장하다 순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류, 장수산업의 리더를 지켜온 순창에 대한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또 영문 슬로건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은 순창에서 '당신의 삶을 더 감칠맛나게 하라는 뜻으로 순창에 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자인은 서예의 동양적 모티브로 표현했으며, 강하고 멋스러운 옛글씨를 조합해 순창의 지역적 특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인의 강한 의지와 순창이 연상되는 고추장의 붉은 색을 전통전각(낙관)의 빨강으로 표현해 장류와 장수문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

화순농협, 원로조합원 도청 견학

화순농협(조합장 이형권)은 최근 70세 이상 원로 조합원 560명을 대상으로 '2006 원로 조합원 행사'를 가졌다.

이날 원로조합원들은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사, 전남도의회 등을 견학했다. 〈사진〉

이형권 조합장은 "이날 행사는 화순농협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원로조합원을 우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협상 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여수 '무술목 조각공원' 흉물 방치

관리인·주차장 없어 시민들 외면… 잡초만 무성

13억 투입 혈세낭비 지적도

여수시가 13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조각공원이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돌산읍 무술목 일대에 모두 13억여 원을 들여 조각작품 13개가 설치된 조각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이 대부분 조각작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사용돼,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은 물론 공원 관리사무소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원에 설치된 일부 작품의 경우 벌써 명패가 떨어져 나가는 등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원 부지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수풀이 우거지는 등 공원시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각공원 조성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공원 접근로나 주차장, 입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의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원 입구 부지는 1평, 그리고 공원 앞 주차장 부지 1만380㎡는 12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매입이 어려운데다, 매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양수산종합관을 지나 해변으로 향하는 좁은 샛길을 통과해 겨우 공원에 들어서더라도 작품 감상을 위해 만든 탐방로의 폭이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1m에 불과, 작품감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1억3천만원에 구입한 조각작품의 경우 공원 인근 상가건물 외벽에 설치돼, 억대의 혈세를 개인 건물의 인테리어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조각공원을 찾은 이모씨(29·회사원)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각작품만 옮겨놓은 셈"이라며 "십수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일반인이 접근도 하지 못하는 곳에 조각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딸기 비닐하우스 작업 분주 딸기 주산지인 담양군 금성면 한 마을 앞 논에서 딸기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담양 딸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된다. /연합뉴스

깊어가는 가을밤 클래식 선율 감상

'가톨릭 솔리스트 앙상블' 초청 천주교 보성성당 11일 음악회

천주교 보성성당은 오는 11일 저녁 7시, 음악향기를 주제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

보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가톨릭 솔리스트 앙상블'이 출연하여 보성 군민들에게 수준 높고, 친근한 음악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

이날 음악회에서는 또 이 지역 출신 테너 이두재와 솔리스트 앙상블의 민요와 가곡, 성가중창, 브라스밴드의 영화음악이 연주되고 조영대 보성성당 주임신부의 찬조출연 등 다채로운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조영대 신부는 "깊어가는 가을밤에 음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고자 가을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음악회가 종교를 떠나 군민들이 보다 쉽게 클래식에 다가갈 수 있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 솔리스트 앙상블'은 광주가톨릭 음악인회와 PBC 평화방송 소속의 전문 성악인들로 매년 광주·전남지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농협 완도지부, 석류묘목 1만그루 농가 공급

농협 완도군지부(지부장 정동한)는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1억 2천300만원 상당의 석류 묘목을 공급,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완도군 지부는 웰빙 과일인 석류 단지를 조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금일읍· 약산면·금당면·생일면 등 4개 읍·면 영농회에 4년생 석류묘목 1만 주를 공급했다.

정동한 지부장은 "농가소득 증대 일환으로 경제성 있는 석류 단지를 조성하도록 이 같은 지원을 하게 됐다"며 "오는 2007년도에도 관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광산구청, 동사무소 인력 빼가기 '말썽'

출장근무 명목 장기간 본청 근무케 일선 동사무소 일손 부족·질 저하

광산구청이 일부 동사무소 인력을 본청에 장기간 출장 근무토록 해 일선 동사무소의 일손 부족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보다는 구청 근무를 선호하고 있어 이 같은 출장근무 장기화는 일종의 인사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가동사무소의 경우 2명의 주무급(6급)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예산편성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지난달 25일부터 본청에 출장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사무소는 동장마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업무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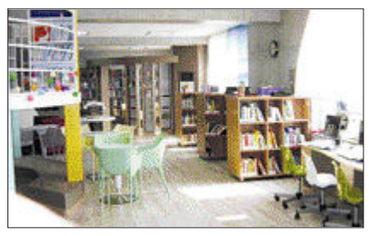
또 첨단1동 사무소도 6급 직원 1명이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라는 업무 수행을 명문으로 지난 9월8일부터 본청에 무기한 출장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직원들은 "사실상 본청에 또 1개의 부서가 증설된 셈"이라며 "3개월 전 이뤄진 조직개편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출장근무는 규정에 없는 편법인데다 인구 증가에 따른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수요 증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출장근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당면한 주요 업무를 추진하거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가 출장근무를 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영광 대마초등 '큰샘 도서관' 문열어



영광군 대마면 대마초등학교 '희망의 작은 도서관'이 지난 3일 문을 열었다. 〈사진〉

'큰샘 도서관'으로 이름지어진 이 도서관은 삼성 사회봉사단과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전국적으로 펼친 '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하게 됐다.

큰샘 도서관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일반 교실 2칸을 리모델링했으며, 장서 7천권을 갖추고 있다.

정대석 교장은 "큰샘 도서관이 대마 면민들의 지역문화센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